

지역 소식통

정읍시, 19억원 투입 교통 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12개 사업 중 6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소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개소에서 대대적인 도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지는 △서초교 오거리 △이평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신태인읍 고산마을 입구 선형 개량 △태인면 공사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고부면 주산지점 선형 개량 △덕천면 새터지점 선형 개량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내장상동 금봉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구룡동(시도 12호선) 도로 확·포장 △갑곡면 회전교차로 보강 △제일고사거리 개선 △도매시장 오거리 개선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

정읍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는 지난 11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남권 해상 풍력 사업 부안군 고압송전선로 설치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우선 공급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먼저 송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부안군을 단순히 전력 생산

의 희생양으로 삼는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부안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약 전력이 새만금에 우선 공급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자도 기업들로부터 외면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송전탑이 지중화되지 않고 부안군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가 설치될 경우 부안군의 관광 산업과 주민들의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송전선로 설치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4년 시민의 장 수상자 3명 선정

지역 사회 기여자들 공로 빛나

정읍시는 지난 10일 2024년 정읍시민의 장 선발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시민의 장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는 문화체육, 애항봉사, 효행 선행 부문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인물들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아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심사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 후보자들의 공적을 면밀히 평가해 선정했다. 심사 결과 △문화체육장 수상자로는 이정희 씨(80, 자수공예가), △애항봉사장에는 안정남 씨(80, 엘디마트 대표), △효행선행장에는 김다복 씨(79, 주부)가 각각 선정됐다.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수공예가 이정희 씨는 40년 넘게 전통 자수공예에 매진하며, 그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그녀의 헌신



문화체육장 이정희



애항봉사장 안정남



효행선행장 김다복

덕분에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졌고,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졌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해온 안정남 씨는 인제 양성 장학금 기탁 등 지역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80세의 나이에도 지역을 위한 그의 헌신은 시민들의 귀감이 되고 있고, 이번 수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김다복 씨는 차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105세 시아버지

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효행 문화를 실천한 공로로 효행 선행장을 수상했다. 가족을 향한 그녀의 헌신적인 돌봄은 사회적으로 큰 감동을 줘 이번 수상으로 효행의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

시는 오는 28일 제30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의 장 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이번 수상이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정읍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그들의 발자취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제20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부 장관상 수상

부안군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적인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안군은 이번 대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역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은 그동안 ‘수소충전소 2개소 구축을 통한 수소에너지 공급과 수

소전기차 확대’를 통한 수소 소비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수소청소차 실증 △수소서비스 연료전지 시스템 지원사업 등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안군 수소경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확장했다.

또한 2024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사업, △88억원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탄소융복합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부안군의 이번 성과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자치 정책과 사업이 기대되며 부안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수소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더욱 발전된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63회 고창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제63회 고창군민의 날’ 개최

고창 동리국악당서 심덕섭 고창군수 등 300여명 참석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 63회 고창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1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이번 군민의 날 기념식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뜨거운 애항심으로 항상 고창 사랑을 실천해주시고 있는 재경군민협의회, 재전군민회 등 수많은 재외군민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고창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군민의 장을 수상한 공익장 정종만, 문화체육장 김영남, 산업군로장 김기주, 애항장 이인재, 효행장 오애숙씨에 대

한 시상식이 함께 개최됐다. 또한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올해 명예군민에 선정된 이창근(서울시 니어스타워(주) 대표이사), 김병수씨((주)에스비푸드 대표)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군민의 날 기념식 후에는 군민화합 오찬을 고창애항본부(본부장 백영중)와 함께 진행하여 고창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념사에서 “고창을 지켜온 힘은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의 길을 걸으며 군민의 참여와 화합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눈부시게 도약해 갈 고창의 미래에 함께 동행해달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벼 피해 대책 마련해야”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 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벼멸구와 흑명나방 등의 병해충 피해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 이상기온으로 인한 고온다습 피해가 벼 수확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8월 한 달간 기온이 35도에서 38도에 이르며 벼 생육이 멈추고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알이 여물지 않는 백수 현상이 발생했고, 1헥타르당 수확량이

700kg~1,000kg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명백한 농업재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정하고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한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벼 이앙 시기 조정과 같은 사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수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